CS TECH Customer Satisfaction Technology (주)씨에스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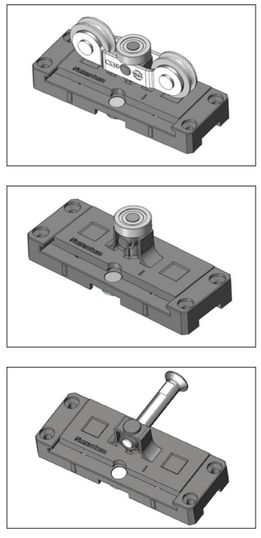
유럽식 PVC 수평밀착 시스템창호 프로파일에도 적용이 가능한 '휴젠텀' 개발

알루미늄 수평밀착 시스템창호 하드웨어도 개발완료

수평밀착 시스템창호 하드웨어 '휴젠텀(Huzentum)'을 개발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주)씨에스테크(대표 이재선)이 독일 및 유럽의 PVC슬라이딩 시스템창호 프로파일에 적용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개발했다. (주)씨에스테크는 이번 신제품을 개발하면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하드웨어 업체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취재 · 글_김지환 기자
취재협조_(주)씨에스테크 041.522.9687







국내 슬라이딩 시스템창호시장은 2010년대 말까지 T/S시스템창호가 주도했으나 20년대 접어들면서 점차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시스템창호가 시장을 리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등 유럽의 대부분의 시스템창호 업체들은 수평밀착형 시스템창호 프로파일을 개발하며 시장에 참여하면서 국내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하드웨어 사이즈와 기능의 다양화로 적용성능 높여

(주)씨에스테크도 이러한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시스템창호 하드웨어인 '휴젠텀'을 개발했다. 2021년에 국내 업체에게 휴젠텀을 공급했던 (주)씨에스테크는 최근 독일 등 유럽 업체의 수평밀착형 시스템창호 프로파일에도 적용이 가능한 제품을 개발했다.





알루미늄과 PVC 수평 밀착형 시스템창호에 적용

이미 독일의 세계적인 시스템창호를 제작하는 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씨에스테크의 '휴젠텀'이 해외 프로파일에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하드웨어 사이즈와 기능의 다양화를 통해서이다.

기존 '휴젠텀'은 프로파일에 하드웨어가 들어가는 공간넓이가 50mm 제품만 개발해 공급했으나, 수입프로파일 등 다양한 제품 적용을 위해 40mm제품도 새롭게 개발했다.

현재 '휴젠텀'은 넓이 50mm에 높이 38mm와 35mm 등 2제품과 넓이 40mm에 높이 38mm와 35mm 등 총 4개 제품을 개발했다. 이들 4개 제품은 국내에 수입된 모든 수평밀착형 시스템창호 프로파일을 커버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이즈의 프로파일이 도입되면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주)씨에스테크의 이재선 대표는 "국내에 도입된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시스템창호의 프로파일은 레일 간격은 40mm와 50mm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높이도 35mm와 38mm가 대부분이다. '휴젠텀'은 4가지 모두 개발을 완료하여 국내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프로파일에 하드웨어 적용이 가능하게 하였다."고 설명했다.

코리아빌드 참가해 신제품 전시

(주)씨에스테크는 PVC용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시스템창호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재질의 수평밀착 시스템창호용 하드웨어도 개발하여 공급을 완료했다.

LS시스템창호가 리드하고 있는 국내 알루미늄 슬라이딩 시스템창호시장에 '휴젠텀'을 적용한 수평밀착형 슬라이딩 시스템창호가 개발되면서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씨에스테크는 지난 2월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코리아빌드'에 참가해 알루미늄 수평밀착제품을 전시하며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했다. PVC수평밀착제품과 함께 전시한 신제품은 전시회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이재선 대표는 "국내 알루미늄 슬라이딩 시스템창호 시장은 LS시스템창호가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 그러나 PVC슬라이딩 시스템창호 시장도 T/S에서 수평밀착제품으로 흘러가듯이 알루미늄 슬라이딩 시스템창호 시장도 수평밀착형제품이 주력제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초 2공장을 설립하며 생산라인을 증설한 (주)씨에스테크는 최근 신제품 개발로 제품주문이 늘면서 주문량을 소화하기 어려워 1년 만에 새롭게 생산라인 증설을 준비중이다.

한편, 이재선 대표는 지난해 12월 우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으로 지역산업육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남도지사 표창장을 받았다. 이 대표는 충남IP경영인클럽을 이끌면서 제품 기술개발 및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 작업 안전성과 생산능률 향상 등에 전념했다.

특히, 자체 설계로 주문제작한 자동화 생산설비 구축으로 일률적인 제품품질과 가동률, 안전성을 높였다. 기계자동화를 통해 인력과 비용절감에도 기여해 어려운 경기 속에서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생산비용이 높은 요즘 시기에 경쟁력을 강화시켰다.